

凝窩의 「瀛洲十景歌」考

梁 淳 秘*

I. 序 論

본고는 凝窩 李源祚가 1841년(憲宗 7년) 윤 3월에서 1843년(憲宗 9년) 윤 7월까지 濟州牧使로 재임중에 저술한 「耽羅錄」속에 수록되어 있는 「瀛洲十景題畫屏」¹⁾을 고찰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

II. 作家考

李源祚는 조선조 후기의 성리학자이며 문신이다. 그의 본관은 星山, 호는 凝窩, 자는 周賢이다. 경상도 星州 大浦里에서 1792년(正祖 16년) 父 亨鎭과 母 咸陽 朴氏 사이에 차남으로 출생하여 李奎鎭에게 입양, 1871년(高宗 8년) 8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의 家系는 고려 개국공신인 李能一이 肇祖가 되며 조선조에 와서 李友는

* 國語教育科 教授

1) 凝窩의 「瀛洲十景題畫屏」을 「瀛洲十景歌」로 줄인다.

진주 목사를 지냈고 月峰 李延賢은 寒岡 鄭述의 문인이었다. 증조는 활달한 기개가 있어 선전관을 지냈고 조부 四美堂 敏謙은 후진 교육에 진력했다. 양부 奎鎭은 당대 문장에 뛰어나 알성사에서 장원급제를 했으며 생부 亨鎭은 奎鎭과 함께 立齋 鄭宗魯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金昆玉季라 칭해지기도 하였다.²⁾ 凝窩는 鄭宗魯를 스승으로 柳範休, 柳致明 등으로부터 李象靖의 학문을 배우기도 하였다.

凝窩는 풍양 趙氏 應珠의 딸과 혼인하여 3남(鼎相, 驥相, 龜相) 3녀의 소생을 두었다.³⁾

1809년(純祖 9년) 18세 때에 中東堂에서 거행된 增廣試에서 乙科급제를 하였다. 1812년(純祖 12년) 출사하여 權知承文院副正字가 되고 1830년(純祖 30년)까지 두루 거친 관직은 주로 내직으로 啓功郎副正字, 宣敎郎, 禮兵曹佐郎, 司憲府特平 등을 지냈다.

憲宗朝에 들어서서 正言, 實錄廳粉板郎, 司憲府掌書 등을 거쳐 1840년(憲宗 6년) 49세 때에 江陵府使로 재직중 1841년(憲宗 7년)에 제주목사직을 제수 받고 1844년 이후 刑曹參議, 右承旨, 左承旨, 慈山府使를 역임했고, 哲宗朝에는 한때 사직당하기도 하였으나 재등용되어 大司諫, 左承旨兼經筵特進官을 거쳐 高宗 때 漢城判尹, 龍驤衛大護軍兼智義禁府智春秋館事, 兵曹參判, 工曹判書를 마지막으로 지냈다.⁴⁾ 그는 理氣說에 있어서 動靜을 太極의 기능이라고 해석하여 理動·理生氣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退溪學을 따라 理動氣協의說을 주창 栗谷의 설은 主氣에 치우친 편견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氣란 본래 湛一과 濁駁, 선과 악을 함께 내포한 것이므로, 담일한 氣로서 마음의 本善을 논증하려고 하는 栗谷學派의 주장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다. 四端七情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단에 따르는 것이 칠정의 기요, 칠정이 타는 것이 사단의 理이다. 이것은 混融妙合하여 원래 떨어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理氣는 相離하면서 不相離한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함께 있고, 발한다면 함께 발한다(發則俱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復基初’는 수양 공부를 강조하여 存心을 통하여 養性할 것을 주장하고, 수양하는 방법으로는

2) 「凝窩全書(1)」凝窩府君家狀, 驪江出版社, 1987. p. 445.

3) 위의 책 p. 449.

4) 위의 책, 凝窩先生年譜, pp. 453~458 참조.

「敬」을 들었다. 한편 당시 일어나던 西學과 東學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반대하였다. 그의 尊性의 사상은 조카인 李震相의 “心卽理說”로 계승되었다.⁵⁾

凝窩의 제주 입도 연유는 英國人의 제주도 표착사건에서 기인한다. 이 사건으로 具載龍 목사가 파직되고 凝窩는 영의정 趙寅永의 천거로 그 후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⁶⁾

凝窩의 제주도 재임기간은 1841년(헌종 7년) 윤 3월에서 1843년(헌종 9년) 윤 7월까지였다. 이 기간에 일어난 제주목의 모든 공문을 기록한 「耽羅關報錄」과 목사로서 전라관찰사 등에 啓稟啓聞한 것을 모아 「耽羅啓錄」을 엮었다. 또한 제주도의 인물, 지리, 호구, 풍속, 사적, 도서 연구에 대한 것을 「耽羅誌草本」으로 편집했고 시문집으로 「耽羅錄」을 남겼다.⁷⁾ 「耽羅錄」은 내용의 편제가 왕명을 받아 제주목사직을 받게된 경위, 강릉에서 고향을 거쳐 입궁하여 직을 재수받고 육로를 거쳐 제주도에 도입할 일정, 재임기간 동안의 행적을 기록하고 다시 상경하여 귀가한 일들을 적은 것으로 엮여졌다. 이 「耽羅錄」은 대다수가 시문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네 저서들은 제주도에 관계된 문헌으로 당시의 제주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凝窩는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역대 어느 목사보다 많은 일을 하였다. 흉년의 賑恤策을 적극 펼쳐 기근에 허덕인 섬사람들을 구했고 각 집마다 조세를 경감시켜 주었으며 老人을 봉양토록 시책을 펴고 제주도의 토지를 잘 이용하여 경작지를 조성했는가 하면 儒學을 진흥한 노력도 지대했다.⁸⁾

Ⅲ. 凝窩의 「瀛洲十景歌」分析

목사로 부임한 凝窩는 公事의 일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주섬의

5) 『儒學大事典』 博英社, 1990. p. 1218.

6) 「凝窩全書(1)」 凝窩先生年譜, pp. 457~458. '時英吉利人 漂到大靜之加波島 搶屯牛而去 大臣以邊備疏虞 啓羅牧使具載龍 命擇守勿勿常格 領議政 趙寅永 以先生應命'.

7) 위의 책, pp. 16~17.

8) 위의 책, 凝窩府君家狀, pp. 446~447. '辛丑三月 渡海 異舶已去 三年無他警 於是請移粟 賑飢戶 鑄 官供行養老宴 困山獵而練軍 實罷島場 而給民田政既成 創鄭桐溪祠 建塾三泉以興儒化'

자연과 풍광을 시로 표출하였다. 제주섬의 경승지를 소재로 하여 표출한 「瀛洲十景歌」는 이른바 제주섬 지역의 풍토를 영출한 서경시이다. 제주섬을 상징하는 절경을 꼽았을 때 열린 瀛洲의 열개의 절경을 떠올릴 수 있다. 凝窩는 瀛洲 절경인 〈瀛邱賞花〉, 〈正房觀瀑〉, 〈橘林霜類〉, 〈鹿潭雪景〉, 〈城山日出〉, 〈紗峯落照〉, 〈大藪牧馬〉, 〈山浦釣魚〉, 〈山房窟寺〉, 〈瀛室奇巖〉⁹⁾ 등을 영주십경이라 명명하여 그 감흥을 7언시로 표출하였다. 제주섬의 풍토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여기에 사는 제주섬 사람들은 사계의 추이에 대해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문화적, 사회적 제현상도 계절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 많다. 문학도 또 예외가 아니다. 「瀛洲十景歌」도 사계의 풍광중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쉬 이해케 된다.

제주섬 내의 뛰어난 열개의 절경을 보고 영주십경이라 명명한 유래는 어느 때부터 비롯되고 누구에 의해 선정되어 불리어져 왔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고려 고종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목판 가운데 「濟州仙景歌」가 끼여져 있었음을 볼 때 오래전부터 瀛洲의 절경을 보고 그 감흥을 표현한 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濟州仙景歌」는 제주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고 제주도가 불가의 도량이라고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¹⁰⁾

구경가세 제주선경 구경가세
 남방으로 수로길 5백리 가면
 남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도양
 백륙담 머리위엔 감로수 있고
 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 앉은 양
 좌우로 아름답게 툇은 산맥은
 삼신산 영주산인 한라산인데
 이곳 저곳 벌려있는 장한 풍경은
 그중에 영주십경을 들어보아라
 성산일출 뜨는 해는 불타의 광명
 영구춘화 봄꽃이 백화가 난만

9) 李源祚, 「耽羅錄」(耽羅文化叢書(3)),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9. pp. 44~46.

10) 「제주선경가」, 제주신문, 1982. 7. 31. '慶南 陝川郡 海印寺의 8만대장경중에서. 이 내용을 해석한 이는 대한불교 禪學院 尹柱日 스님이다.'

정방하폭 물줄기는 시원도 하다
삼방굴사는 기묘한 수도장인데
고수목마 노는 말은 자유천지요
아득한 옛날 삼성혈에서
일도, 이도, 삼도에서 웅거했도다.
..... 중략

한라산은 우리나라 십경중 제일 가는 곳
가는 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 수 없네
사봉낙조 지는 해는 일상광일세
굴림추쇄 가을색은 황금의 세계
녹담만설 쌓인 눈은 설산에 온듯
영실기암 천불나한 장하도 하다
산포조어 뛰는 고기는 용궁 세계라
고랑부님이 솟아나오사
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하셨네.
..... 이하중략

한편 1932년 간행된 「李在守實記」와 「濟州島實記」 속에 「瀛洲十景歌」가 국문가사로 수록되어 있다.

이제 凝窩 「瀛洲十景歌」를 고찰해 본다. 이 영주십경가는 대체로 첫째 四季節의 叙景: 瀛邱賞花, 正房觀瀑, 橘林霜頰, 鹿潭雪景, 둘째 日出日沒의 叙景: 城山日出, 紗峯落照, 셋째 産業風土의 叙景: 大藪牧馬, 山浦釣魚, 넷째 奇巖窟寺의 叙景: 靈室奇巖, 山房窟寺 등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다.

1. 四季節의 叙景

瀛邱賞花

廣闊幽深境不齊	넓고 그윽한 경치 땅은 들쭉날쭉
就中奇艷卽山溪	■어난 절경 산과 시내로 나섰네.
春風隨入飛仙窟	봄바람 비선굴로 들어가고
躑躅花前海鳥諱	철쭉꽃 앞에 바닷새가 짓어대네.

영구상화는 영구춘화라고도 한다. 제주시 남쪽 방선문에 봄이 오면 철쭉꽃이 만발하여 그 정경을 賞春하며 읊었다. 제주도 오등동 냇속에 있는 방선문의 별명이 영구이다. 방선문은 제주시 용연으로 흐르는 한천의 상류 6킬로미터 지점에 있어 계곡 양편은 기암과 수림 그리고 철쭉꽃으로 이름난 곳이다. 여기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두갈래 계곡이 마주치는 지점에 석문이 있다. 이 바위문이 방선문으로 그안은 백명이 들어 앉을 만한 넓이이다. 이 곳 암벽으로 둘러싸인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흘러서 맑은 느낌을 둔군다. 위의 시는 계곡의 암석 사이로 봄날이면 분홍빛 철쭉꽃이 무수히 피어 푸른 녹음과 암석의 회갈색이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룬 영구라는 계곡의 경치를 보고 읊은 것이다. 속세를 떠난 자연세계에 저절로 몰입하게 되는 너무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절경이어서 마치 신선이 사는 곳과 같아 방선문이라고 하여 마애刻字가 현존하고 있다. 철쭉꽃이 피는 봄날에 이름모를 바닷새의 지저귀는 청각적 심상으로 더 강렬히 와닿는다. 조선조 때 제주목사들은 육방관속과 관기를 거느리고 여기에서 봄놀이를 즐겼으며 시인 묵객들도 이 곳의 봄을 즐겼다. 위 瀛邱賞花 외에도 凝窩는 이 곳 절경의 감흥을 다음의 7언율시 「登瀛邱興伯氏拈韻」에서도 읊었다.

俯視踈然首復昂	눈 크게 쳐다보며 머리도 치켜들고
就中崖壁氣堂堂	암벽으로 가는 기운 당당도 하네.
粉粉亂綠爭團帳	붉은 꽃 날리고 질푸르름은 휘장 두르고,
兩合雙縫似括囊	두쪽 꿰맨게 주머니 같네.
急瀑何年穿石竇	빠른 물살 언제 바위에 구멍을 뚫었나
遊人今日坐巖廊	나그네 오늘에야 이 궁전에 앉았네.
怪他留刻題登宇	절경인 곳에 登字를 새기니.
地底幽深是別鄉 ¹¹⁾	땅 깊고 그윽한 곳 이 곳이 별천지로세.

붉은 꽃 질푸른 녹음이 계곡 양쪽에 펼쳐져 있는게 마치 주머니를 꿰맨것 같은 계곡, 위로 오르다 보니 암벽 사이를 뚫고 흐르는 간천수가 있으니 여러 곳을 다녀 보았으나 이곳 만큼 아름다운 경치로 둘러싸인 곳은 없을 듯하다.

11) 李源祚, 「耽羅錄」, (耽羅文化叢書(3)),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9. p. 48.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신선이 된 느낌에 澄字를 새기며 선인이 된 정서를 깊숙하게 간직해 보려 한다. 암벽 사이에 핀 철쭉꽃 푸르른 녹음, 졸졸대며 흐르는 간천수 등 시각, 청각적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한편 이곳의 절경을 읊은 판관 金緞 李義謙 목사 韓鼎運, 趙義純, 방어사 洪重徵 등의 마애시가 남아있는 것을 보더라도 등영구는 이름있는 절경으로 회자되었던 곳이다.¹²⁾

正房觀瀑

鉅海元來集衆波	넓은 바다 많은 물이 모아진 곳
達觀無小亦無多	적지않고 많지도 않아 달관됨이네.
正房瀑布布名茲土	정방폭포라 이름하니
夏雨襄雷已足託	여름비 속에 번개치는 것 같구나.

정방폭포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 벼랑으로 떨어지는 하얀 물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하얀 비단을 흘러 드리운것 같아 폭포수가 직접 바다로 떨어진다. 서귀포 동쪽 바다가에 위치한 정방폭포는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로서는 동양의 유일한 것이다. 폭포의 높이는 23미터, 주변의 해안 절벽은 장관을 이루고 앞바다에 뜬 섬섬, 문섬, 새섬 등은 난대림 숲이 우거져 남국의 정취를 한결 돋군다.

不擇細流하여 큰 바다를 이루었기에 달관의 경지로 표현하였다. 큰 규모의 폭포이기에 벼랑 끝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의 물소리가 여름날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다.

오랜 옛날 秦始皇의 사자 徐市이 이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에 불로초를 구하려고 童男童女 5백명을 거느리고 이 곳에 당도하고 돌아가면서 폭포석벽에 <徐市過之>란 磨崖字를 새기고 서쪽으로 갔다고 하는데서 西歸浦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설이 있다. 정방관폭은 달리 정방폭포로 불리어지고 있다.

橘林霜顆

千橘林中一草堂	수많은 귤린속 한 채의 초당
日生公事漸看黃	동사 처리하는 사이에 점차 익어가네.

1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편, 「濟州磨崖銘拓本展」, 1988, pp. 5~36.

秋來箇箇輪舟楫 가을이 오면 한개씩 배에 실어 보내고
去作蓬萊殿裏香 봉래전에서 제사나 올렸으면.

橘林霜類는 가을 별에 두르 익어가는 귤원의 노란 감귤의 경치를 읊은 것이다. 잠시 귤밭의 초당을 찾고 싶으나 공사에 쫓기다 보니 미음완보할 겨를이 없다. 그런 사이에 귤은 점점 익어간다. 귤이 다 익으면 한개씩 정성스럽게 싸서 임 제신 곳에 보내 신하의 정성어린 충정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草堂'이란 은자의 주거요, 士庶人의 주거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 은자의 문학인 평시조에 나오는 주거는 언필칭 '초당'이다.¹³⁾ 그런데 '수 많은 귤림속 한 채의 초당'은 凝窩가 몸을 담고 싶어했던 초당이나 그것도 공사로 여의치 못하는 것이다.

제주섬에서 처음 果園이 생긴 곳은 州城이었다. 늦가을 州城에 올라서 전망하면 노랗게 익은 귤들이 황금빛 세계를 이루었다. 牧使 李壽龍(1536년) 때는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하여 귤나무를 많이 심고 새로이 果園을 마련하니 州城內外에 과원이 25개소나 되었다고 한다. 매년 수확은 임금께 진상하다가 高宗 31년(1894년) 進上制度가 폐지되면서 차츰 과원들도 황폐하여 버렸다.

橘林霜類는 달리 귤림추색이라 일컬어 진다.

鹿潭雪景

仙有仙無只此間 신선이 있음직 없음직한 사
瀛洲天放使群閑 영주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가롭구나.
山下白雲山上雪 산밑에 흰구름 산위에 쌓인 눈
官樓咫尺對孱顏 관루 가까이에서 산을 바라본다.

鹿潭雪景은 한라산 정상 백록담 주변에 눈 내린 경치를 읊은 것이다. 해마다 11월 중순경이면 한라산에 瑞雪이 내린다. 첫눈이 쌓인 아득한 고원에 다시

13)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5. pp. 367~369

- 江湖에 너름이 드니 草堂에 일이 없다.
- 이보오 벗님너야 草堂으로 모다소서
- 南山외 아드매만 高學士 草堂지어
- 늙고 病든 몸이 草堂의 누어시니
- 시니 흐르논 골에 바회스려 草堂덧고
- 林泉을 草堂삼고 石床의 누어시니

눈이 내려 덧쌓이면 산의 겨울은 깊어지고 한라산의 설경은 이듬해 1월에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덧쌓인 눈은 5월까지 녹지 않고 殘雪로 남아 눈시린 秘景을 이루는데 이를 두고 ‘鹿潭晚雪’이라고도 일컫는다. 백록은 선인과 짝해 다니는 전설적인 사슴이다. 이런 분위기에 쫓아 선유적인 시풍을 조성하는 것이다. 흰구름과 눈이 쌓인 한라산 꼭대기를 보면서 산을 바라보는 작가의 지향을 품어 보는 것이다.

2. 日出日沒의 叙景

城山日出

天水迷茫夜剡向 가늘게 내리던 비가 밤이 되니 그치고
 眼看如窄又如寬 눈으로 보니 마음이 여유롭다.
 須臾蕩橘光難定 출렁이는 물결 산란한 빛
 快露雲端赤玉盤 맑은 이슬 구름 끝에 붉은 옥쟁반

성산일출은 성산포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관을 읊었다. 간간히 뿌리는 은색의 실비가 밤이 깊어지자 그친다. 비를 보고 해돋이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에 젖는다. 해돋이를 보지 못할까 했던 조바심이 해소된 사이 해는 ‘맑은 이슬 구름 끝에 붉은 옥쟁반’처럼 떠오른다. 가사에서 城山日出은 다음과 같이 표출되어 있다.

계일경 성산일출 동해변에 두엇한 봉
 일출산이 분명하야 극장망해 차저가서
 사방을 삼혀보니 바다물은 음령울렁
 새벽빛은 반짝반짝 천산이 어둡더니
 동해상에 붉은박취 부상에 동실눕히셔
 만국이 밝아진다 어선들은 일출보고
 어귀엇차 돛을달고 물새들이 모혀드니
 일출처가 여기로다 우습고도 우습도다.
 과부의 헛된수고 일출처를 차지려고
 수천만리 허보하되 성산일출 물낫스니

그령혼을 잠간불너 이곳을 가라칠가¹⁴⁾

紗峰落照

霞丹赤水無垠 붉은 노을 흰물결 끝없고
 一面紗羅夕照懸 비단처럼 한면에 펼쳐지고 걸려진 석양빛.
 人間漫惜滔滔景 사람들 모두 도도한 물 경치 아끼나
 明日明朝一掃新 다음날 아침은 새롭게 바뀌지리.

사봉낙조는 사라봉에서 바다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느낀 감흥을 읊었다. 해질 무렵 사라봉에 오르면 성산일출의 감동만큼이나 진한 승화를 느낀다. 서녘으로 기울던 해가 잠시 숨쉬며 내뿜는 생명의 열기, 파도에 투영된 붉은 불덩이가 금파홍파를 이루며 수평선 너머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경관이다. 148미터 높이를 이 사라봉은 남으로 한라산을 면하고 서북은 바다로 뻗어나와 성산일출과 대조적이다. 사라봉에 올라서 바다로 지는 일몰의 석양을 바라보면 마치 하늘과 바다가 맞붙어 불타는 듯한 감동에 싸인다. 위의 시에서 보인 감각은 지극히 영상적이다. 불그스름한 저녁놀이 흰물결, 하얀 비단을 펼쳐 놓는데 한 점의 붉은 놀이 걸린 것은 대담한 서경인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은 모두 도도한 물의 경치 아끼나 다음날 아침은 새롭게 바뀌지리'라 하여 그 절경을 탄복하는 것이다.

3. 産業風土의 叙景

大藪牧馬

家畜山場本一群 가축이 목장에서 한 떼를 이루고
 三州十所聚如雲 제주도내 열개 소장 목장에 구름처럼 모였네.
 渠驚渠驥潭無管 노마 천리마 섞어도 상관 없으리
 籬策加時奈細分 채찍질 한다고 자세히 구분되랴.

제주섬은 예로부터 목장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고려 때는 몽고가 제주섬을 직할목장으로 삼았으며 조선조 때는 감목관이 있어서 섬안 도처에 이름난 목

14) 「李在守實記」, 中島文萃堂, 1932. pp. 46~49.

장들이 있었다.

大藪牧馬는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방목하는 가축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말때의 평화로운 풍경을 읊은 것이다. 세종 11년(1429)에 高得宗의 건의에 따라 목마장을 한라산 산록으로 옮기어 갖성을 하게 되었다. 이때 목장을 10개 所場¹⁵⁾으로 나누어 우마를 방목하였다. 자유스럽게 구속됨이 없이 풀을 뜯는 우마의 군락을 보면서 구태여 둔마와 준마가 섞인 것을 채찍질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위적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함 보다는 자연 본성 대로 두는 것이야 말로 인위적 폐해를 가장 극소화 하는 것이다. 대수목마는 달리 고수목마라 일컬어지고 있다.

山浦釣魚

浦浦槎船點點飛 포구에 점점히 흩어진 때배
 風頭凹凸浪成團 바람불어 쓸링이는 물결이 울다리 이루네.
 雖然釣得漁盈擔 낚은 고기 짙어진 채
 爭奈身從險裏歸 어떻게 험한 속을 몸끌고 돌아가라.

山浦釣魚는 산지포에서 어부들이 낚시질하는 장관을 읊은 것이다. 가사에서 산포조어는 다음과 같이 표출되어 있다.

제사경 산포조어 방화수류하야 전천으로 내려가니
 산지물은 바다로 흘리고 중앙은 언덕에 늘어진대
 고기낙은 어옹들은 엄자룡의 본을바다
 칠리탄 차저가니 물결은 산찬하고
 사방이 고요한대 크고적은 어선들은
 상하에 라털하니 적벽강 화전시에
 전전이 련환한듯 한거할제 저어옹은
 청약림 룩사의로 사풍서우 점은날에
 조어에 돛을부쳐 부귀공명 다바리고
 오종오호 소요하니 달팔십 기다리든

15) 金奉玉, "갖성", 「굴소리」 4월호, 한국다사회, 1989, p. 48. 濟州牧에 1所場에서 2, 3, 4, 5, 6所場의 목장이 있었고 大靜縣에 7所場과 8所場의 목장이 있었으며 旌義縣에 9所場과 10所場의 목장이 있었다. 목장관리 총책임자는 제주목사이고 제주관관, 정의현감은 감목관직을 겸임하였다.

강태공의 문정이라 살진컬어 만히낙고
 의내일성 도두우며 단적사풍에 배돌너서
 류교변에 술박으니 산포조어라 하는대요¹⁶⁾

산포조어라 함은 산지포구에 때배 등의 배를 띄우고 사봉낙조의 광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해변일대, 산지포, 경굴, 전입포, 탐알 등에서 한가로이 고기 낚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삿갓 도롱이 등불 등 준비가 끝나면 낚시배는 돛을 달아 수평선을 향해 떠나 살진 고기를 많이 낚은 후에 배를 돌려서 돌아오는 정경을 읊은 것이다.

4. 奇巖窟寺의 叙景

山房窟寺

在佛中莊訝石門 엄숙하게 자리한 불상
 深深窟宅畫猶昏 깊은 굴 속이라 낮인데도 밤과 같네.
 早如愈入愈無見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고
 何以巖顛快倒樽 어찌해 바위 엎어진게 술잔 같은가.

산방굴사는 산방산에 소재한 굴 속 암자와 그 주변의 경치를 표출한 것이 다. 굴속에 안치된 불상과 굴 속의 분위기가 명암으로 표출되고 있다. 산방산의 모양이 꼭 엎어놓은 술잔 같다고 하여 實景의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다.

산방굴사는 제주인의 내세관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굴안은 석벽으로 병풍을 둘러친 듯하며 천정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맛은 일품이다. 이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 산방덕이 세상을 한탄하여 바위가 되어 흘리는 눈물이라는 전설로도 유명하다. 산방굴사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돌부처는 길흉화복을 판단한다고 여겨 사방에서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복을 빈다. 이 굴은 예로부터 불상을 모셨던 곳으로 고려때의 고승 혜일이 '抵園精舍'라고 하여 法道場으로 썼으며 조선조 헌종 때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秋史 金正喜도 즐겨 찾았던 곳이다.

16) 「李在守實記」, 中島文萃堂, 1932. pp. 54~56.

瀛室奇巖

此地靈仙幻石形 이곳 이선계 환상적인 돌모양
 長時雲霧鎖巖窟 긴세월 운무가 바위에 빗장을 걸고
 山人囁語多驚怪 산사람 말소리 빠르게 이상하고
 步履無聲衆樂亭 나막신 소리 중락전엔 들리지 않네

영실기암은 한라산 영실의 오백장군동이 기암괴석의 경치를 읊은 것이다. 영실은 기암들이 이중삼중으로 우뚝우뚝 치솟은 신령스러운 석실을 이루고 있다. 미륵존불암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1250불이 병립한 병풍바위 좌측에는 오백이 넘는 나한등이 시립해 있는 것 같아서 마치 석가여래가 불제자에게 설법하던 영산의 모습이라 하여 영실이라 불리워졌다고 한다.

위 시는 우뚝우뚝한 기암들의 모양을 신선화시켰고, 돌을 에워싼 구름을 때문에 걸린 빗장으로 표현해 이 곳은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고 역동화하고 있다. 속세를 등지고 못 인간의 삶을 떠나 고고하고 청정하게 살려는 극락원을 기린다.

IV. 結 論

이제까지 凝窩 李源祚의 「耽羅錄」 속의 「瀛洲十景歌」를 고찰해 보았다. 이 「瀛洲十景歌」가 지니는 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이 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瀛洲十景歌」는 제주도내 뛰어난 열개의 절경을 두고 읊은 것인데 그 명칭의 유래는 어느 때부터 선정되고 누구에 의해 집성되어 불리워져 왔는지 알 길이 없으나 고려대의 「濟州仙景歌」가 있었음을 볼 때 그 연원은 오래 전부터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瀛洲十景歌」는 대체로 ① 四季節의 叙景 ② 日出日沒의 叙景 ③ 產業風土의 叙景 ④ 奇巖窟寺의 叙景 등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이 「瀛洲十景歌」는 제주의 풍토와 절경을 보고 느낀 감흥을 읊었다. 그러나 그 제목이 모두 낙자로 대를 이루고 있으며 제주 특유의 것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日出日沒의 叙景을 읊은 〈城山日出〉은 〈紗峯落照〉와 대구를 이루고 있다. 〈城山日出〉이 제주섬의 하루 생활에서 시작을 뜻한다고 하면 〈紗峯落照〉는 하루 생활의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인간 삶의 윤회를 짐작케 해 준다.

다섯째, 四季節의 叙景을 읊은 〈瀛邱賞花〉, 〈正房觀瀑〉, 〈橘林霜類〉, 〈鹿潭雪景〉 등은 제주풍토에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瀛邱賞花〉는 봄, 〈正房觀瀑〉은 여름, 〈橘林霜類〉는 가을, 〈鹿潭雪景〉은 겨울을 나타내고 있어 이른바 제주섬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낙원임을 상징하고 있다.

여섯째, 產業風土의 叙景을 읊은 〈山浦釣魚〉는 〈大藪牧馬〉와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山浦釣魚〉는 어업을 〈大藪牧馬〉는 농축업을 나타냄으로써 이른바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요, 먹고 사는 터전인 어업과 농축업을 통한 산업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靈室奇巖〉은 〈山房窟寺〉와 대구를 이루고 있다. 〈靈室奇巖〉은 바위를 〈山房窟寺〉는 굴을 나타내고 이 굴은 제주인의 내세관 즉 제주풍토에 뿌리내릴 영원을 향한 인간의 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